

르노아르(Renoir) 그림에 나타난 여자 복식의 분석

鄭賢淑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The Analysis of Female Costume in the Paintings of Renoir

Hyun-Sook Jeong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1. 자기 도취
I. 서론	2. 노출
II. 르노아르의 생애와 작품세계	3. 신체적 자아의 확대
1. 르노아르의 생애	4. 성감 부위의 강조
2. 르노아르의 작품세계	5. 근육의 에로티시즘
I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V. 르노아르 그림에 나타난 여자 복식의 분석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of the pleasure principle through female costume in the paintings of Renoir, based on the Freud theory. The factors of the pleasure principle pursuing the desire-satisfaction are described as follows ; narcissism, exhibitionism, extension of the bodily self, the emphasis of erogenous zone, and muscle-erotism.

I. 서론

Freud는 사람의 신체를 하나의 복잡한 에너지 체계로 파악했으며, 心的 에너지는 인성의 세 체계인 id, ego, superego를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하였다.

id는 본능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마음(mind)을 재촉하는 기능을 하며, 고통을 피하고 쾌감을 추구하는 쾌감원칙(pleasure principle)을 따른다.

다.

ego는 본능적 욕구의 실행자로서 작용하며, 개인의 내면적 욕구와 그의 환경 사이를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욕구의 만족을 위한 적당한 대상이나 환경의 조건이 발견될 때까지 자극의 방산을 억제하는 현실 원칙(reality principle)을 따른다. 현실 원칙(reality principle)은 즉각의 만족을 연기함으로써 쾌감 원칙(pleasure principle)을 수행한다.

우리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Flügel은 “의복은 인간의 욕구만족을 위해 고안된 품목(articles)이며, 본질적으로 절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본 연구는 Freud의 쾌감 원칙(pleasure principle)과 현실 원칙(reality principle)의 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풍요한 빛과 생명력 넘치는 색채로써 아름다운 여성을 그렸던 르노아르 그림의 여자 복식에서 현실 대상인 복식을 통하여 쾌감 원칙(pleasure principle)을 수행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의복과 장식에 초점을 두고 많은 그림을 그린 르노아르의 그림에서 노출과 복식, 과다한 장식을 통하여 욕구만족 즉 쾌감을 얻는 여자 복식의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욕구만족 즉 쾌감 원칙을 수행하는 복식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만족을 위한 복식행동을 나타내는데 일조(一助)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르노아르 그림은 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상태에 따른 변화에 의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동적 요인은 제외하고자 한다.

II. 르노아르의 생애와 작품세계

1. 르노아르의 생애

피에르 오귀스트 르노아르(Pierre Auguste Renoir)는 1841년 2월 25일 리모주에서 태어났다. 1845년 그의 가족은 파리로 이사하였고 이곳에서 제단사인 부친의 수입으로 대가족이 검소한 생계를 꾸려갔다. 르노아르는 국민학교를 마칠 무렵인 13세부터 땅플가에 있는 레비 프레르 도자기 공장의 화공으로 취직하였다. 세브르산 도자기의 목동상(牧童像), 루이 15세상, 꽃무늬, 부세식 형상 등을 생생하게 모방해 가는 가운데, 르노아르는 유동적이고 섬세한 색채를 사용하는 기법을 배웠다.

1862년 르노아르는 그때까지 받아 온 야간의 회화수업을 끝내고 정규 미술교육을 받기 위해 국립 미술 학교(Ecole des Beaux-Arts)에 입학했다. 그는 명성은 높지만 수업료가 가장 싼 샤를르 글레르(Charles Gleyre)의 아틀리에에 등록했고, 1862년부터 1864년까지 그는 이곳에서 배

웠다. 이곳에서 그는 프레데릭 바지유(Frédéric Bazille), 알프레드 시슬리(Alfred Sisley)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를 만났다. 르노아르는 친구 광맹 라투르(Famtin Latour)와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자주 찾았다. 1864년 여름 글레르의 아틀리에가 문을 닫자 모네와 바지유의 말에 끌려 친구들과 함께 폰텐느블로 숲 부근에 있는 샬리 앙 비에르에 갔다. 이곳에서 그는 자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1865년에 파리의 살롱에서 그의 작품 <일리아 시슬리의 초상>과 <여름밤>이 입선되었다.

그는 인생과 미술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천성적으로 태평했다. 그러나 그의 생애와 작품에 표현된 가치관은 그가 비록 당시의 다른 대가들처럼 자신의 신념을 공언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자신이 믿는 바를 고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뜻하고 유쾌한 성격이었던 르노아르는 큰 욕심이 없었고, 그의 말을 빌면 삶이 그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의 생애는 집이나 루브르 박물관, 샬리 숲과 파리의 거리, 시골의 여인숙과 도시의 살롱을 오간 단순한 것이었다. 그는 단순한 생활을 더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상류사회를 기피하지도 않았다.

1869년 여름, 그는 모네와 함께 부지발(Bougival)에 가서 풍경화를 몇 점 그렸다. 라그르누이예르(La Grenouillère)의 세느 강물에 비친 광선의 효과에 관한 그들의 연구는 색채에 대한 혁명적 관념을 빚어냈으며, 최초의 ‘인상파’ 회화를 태동시킨다.

르노아르는 1870년대의 파리를 즐겁고 유쾌한 도시,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로 가득찬 도시, 그리고 화려한 색깔의 의상과 춤이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도시로 묘사했다. 르노아르는 그가 좋아하는 밝은 빛깔에다 태양과 음영이 균등하게 산재해 있는 그림을 그렸다.

1919년 11월에 폐렴에 걸린 후,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1919년 12월 3일 르노아르는 하녀 네네트가 그를 위해 ‘황홀한’ 까뉴의 산기슭에서 따온 마지막 아내모네 꽃다발을 생각하면서 레 콜레트에서 운명했다.

2. 르노아르의 작품 세계

르노아르는 전통적인 요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며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예술가적인 감정과 상상력을 충분히 구사하여 독창적인 미의 세계를 전개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했기에 현실적인 화가이며 한 예술가로서의 느낌을 충실하게,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자유스럽게 추구했기에 이상적인 미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었던 서양 미술사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개성적인 화가였다.

르노아르는 콘스타블이나 코로(Corot 1796~1875)의 풍경화가 보여주는 미의 원리를 인간 즉 여성의 미로 치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초기 인상주의에 해당하는 시기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그의 자세는 자연의 여러 요소, 예를 들면 색조, 빛, 음영 등을 자유로운 감각, 이성과 관념에서 해방된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고 재구성하려는 것이었다.

르노아르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불규칙적이며 항상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연이 공허하거나 규칙적인 것을 싫어해서 언제나 풍요하고 약동하며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자연관은 그의 전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겠다. 사물의 다양한 변화와 빛의 뉴앙스, 색깔의 투명성 등은 이러한 자연관에 의해서 채택되어지고 자연과 그 생명과의 행복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르노아르의 예술적인 개성과 보편적인 미가 탄생하는 것이다.

르노아르의 색채효과는 18세기 프랑스 화가들 즉 부셰(F. Boucher 1703~1770), 와토(J. A. Watteau · 1684~1721)등에 의해서 기록된 화려하고 감미로우며 신비스러운 효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르노아르는 색채의 단순한 대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색층의 깊이와 색면의 넓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조화까지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묘하고 생명력있는 색채의 사용은 그의 작품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기를 띠게 하였다.

초기의 르노아르는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면서 신화나 역사적 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단순한 사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자신의 예리한 눈에만 의존하면서 독자적으로 모색해 갔다. 그리하여 그는 색채의 조화에 대한 연습에 불과한 듯 인물과 사물을 그렸다.

그는 회화가 일상적인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던 이 시대에 모든 인상과 화가들 중에 가장 현실적이었다.

르노아르는 언제나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일에 열중했고 어떤 특별한 이론을 신봉하지는 않았다.

르노아르는 무엇보다도 색채의 대가로 성장하여 갔다. 그는 1896년경 모네와 함께 세느 강변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모네로부터 자극을 받아 색채의 조화를 위한 보다 완숙한 기술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자연은 이제 약동하는 전체적인 상(像)으로 파악되었고, 화가의 눈은 나뭇가지와 수면과 풀,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입은 잡다한 색의 의복 위에 비치는 햇빛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르노아르의 풍경화는 우아한 아름다움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으며, 붓놀림의 다양성에서도 두드러진다.

1879년과 특히 1880년에 그가 그린 작품들에는 인물의 구도가 보다 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성은 예외없이 경이적이고 투명한 색채효과에 의해 완화된다.

르노아르는 젊을 때부터 부인을 그리는 데 솜씨가 있어, 그 우아한 아름다움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섬세한 감각이 있고 자상한 필의가 깃들어 있다. 그 대부분의 작품은 웃을 입은 모습이며, 의상과 장신구의 화려한 효과까지 합쳐서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으나, 반드시 육체의미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40세를 넘을 무렵부터 후년기로 들어감에 따라 르노아르는 여성 자체로 초점을 좁히고 웃은 벗어 버리고 육체 그 자체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포착하게 되어 간다. 즉, 나부가 그 테마가 되고, 그 나부도 해를 거듭할수록 원숙하고 알찬 육체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인상파의 화가들과 가깝게 지낼 때 제작된 여인상은 대체로 여인 자체보다 여인이 입고 있는 화려한 의복과 장식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르노아르는 또한 꽃의 풍요한 아름다움에 도취했다. 새빨갳게 피어나는 장미꽃 빛같은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답다. 르노아르는 애정을 가지고 이 꽃을 여러 가지로 그렸다. 그는 「꽃을 그림으

로써 나는 나의 머리에 휴식을 주게 된다. 꽃을 그리게 되면 나는 캔버스를 망친다는 두려움도 없이, 대담하게 가치를 형유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르노아르에게 있어서 색채와 빛의 절대적인 기쁨이 되고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대담한 실험의 덕분이었던 것 같다.

색채를 알고 색채를 추구하며 색채와의 행복된 결합을 달성하려던 르노아르는 미를 추구하는 색채의 수도자였다. 르노아르는 개성적인 색채 세계를 완성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心的 기관(Psychic apparatus)의 첫째 목적은 본능적 에너지의 조절, 통제, 그리고 방출로 가정된다. 그것은 본능적에너지의 방산에서 생기는 만족의 쾌감을 얻기 위한 방법과 같은 쾌감 원칙(pleasure principle)을 따르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본능적인 긴장과 관계가 있는 불쾌감이나 고통의 도피와 만족과 관계있는 쾌감의 성취는 심적 기관(psychic apparatus)의 기본적인 경향이나 조절 장치의 원리이다.¹⁾

Freud는 인성(人性)이 id, ego, superego의 세 체계로 구성되고 있다고 본다.

Freud는 사람의 신체를 하나의 복잡한 에너지 체계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id, ego, superego의 세 체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심적(心的) 에너지(psychic energy)라고 한다. 이 심적(心的) 에너지는 주로 사고, 인자, 기억 등의 작용에 충당된다. 인간의 경우에 신체적 에너지와 심리적 에너지 사이에는 끊임없는 변환현상이 일어난다고 있다.²⁾

인성의 id, ego, superego의 세 체계에서 먼저 id를 살펴보면, id는 정신적 생활(mental life)에서 본능적 욕구를 나타내며, 행동으로 옮기도록 심적(心的) 기관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한다.

id는 본능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마음(mind)

을 재촉하는 기능을 한다. id는 외부의 현실이나 도덕성의 요구나 제한과 상관없는 쾌감 원칙(pleasure principle)을 따른다.³⁾

쾌감 원칙(pleasure principle)의 주된 목표는 우리들을 긴장으로부터 해방시키거나 아니면 긴장의 총량을 줄여서 가능한 한 한결같이 유지하는 데 있다. 쾌감 원칙(pleasure principle)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고, 쾌감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⁴⁾

id의 기능은 만족 즉, 정신적 에너지의 방산을 위한 강렬하거나 절박한 욕구에 의해 특징지워진다.⁵⁾ id는 긴장 해소를 통한 쾌감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1차 과정(primary process)이라고 하는 심리과정을 채택한다. 제1차 과정(primary process)은 지각의 동일화(an identity of perception)라고 하는 사태를 설정하여 긴장을 방산하려고 한다.

긴장을 경감시키는 것의 표상을 형성하는 일을 소원 충족(wish-fulfillment)이라고 한다.

id는 이성이나 논리의 법칙에 지배되지 않는 맹목적인 심리체제이며, 가치나 윤리, 도덕에도 상관하지 않는다. 맹목적인 id는 소원충족이 아니면 직접 행동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 에너지가 방산되는 대신에 ego의 지배에 굴종하여 묵여지거나 하는 두가지 길로 발전된다. id는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충동적으로 바랄 뿐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비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d는 주관적 현실의 세계에서 기능을 수행하여 소원하거나 행동한다.⁶⁾

실제로 맹목적인 id는 긴장을 효과적으로 경감시켜 주지 못한다. id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은 사회로부터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고통이나 긴장을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긴장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고려속에 넣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ego의 형성이 불가피하다.

1)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Charles Brenner, "Psychoanalysis", p. 5.

2) 전병재,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1985), p. 62.

3)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Charles Brenner, op. cit., p. 6.

4) 전병재, op. cit., p. 64.

5)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Charles Brenner, op. cit., p. 6.

6) 전병재, op. cit., p. 65.

ego는 쾌감원칙(pleasure principle) 대신에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의 지배를 받는다.⁷⁾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의 목적은 욕구의 만족을 위한 적당한 대상이나 환경의 조건이 발견될 때까지 자극의 방산을 억제하는 것이다.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은 즉각의 만족을 연기함으로써 쾌감원칙(pleasure principle)을 수행한다.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에 의해 과해진 모든 복잡한 정신적 활동(mental activity)은 즐거운 만족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포괄적인 방법을 나타낸다.⁸⁾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에는 제2차 과정(secondary process)이 작용하고 있다. 제1차 과정(primary process)이 욕구 충족에 필요한 대상의 심상(心象)을 형성하는 작용을 하지만 이 제2차 과정(secondary process)은 그 대상을 실제로 발견하는 작용을 한다.

제2차 과정(secondary process)은 사고나 추리등을 거쳐 전개되는 행동계획에 따라서 대상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세운 행동계획을 실험적으로 행동에 옮겨 보는 것을 현실음미(reality testing)라고 한다.

제2차 과정(secondary process)은 주관 세계를 객관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⁹⁾

ego는 외부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기능을 한다. ego의 기능은 본능적 욕구의 실행자로서 작용하며, 개인의 내면적 욕구와 그의 환경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go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본능적인 만족을 연기하는 능력이다. 즉, 본능적 에너지의 방산을 지연시키는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에 있어서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id의 기능은 제1차 과정(primary process)을 따르는 반면, ego의 기능은 제2차 과정(secondary process)을 따른다.¹⁰⁾

ego는 대체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발전되는 것이지만, 그 발달의 맥은 유전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성숙과정에 의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성장된다. 그러나 ego의 보다 더 효과적인 발달에는 교육이나 훈련등의 의도적인 노력이 크게 도움이 된다.

ego의 에너지가 지각, 주의, 학습, 기억, 판단, 추리, 식별, 상상 등의 정신적 과정을 발달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ego의 에너지는 id, ego, superego를 통괄하는 역할을 한다.¹¹⁾

superego는 인성중에서 도덕적, 재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대표하며, 현실이나 쾌락을 위해서 보다는 완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ego는 id로부터 형성되며, superego는 ego로부터 형성된다. id와 superego는 모두 비합리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현실을 왜곡하고 변질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id는 ego로 하여금 본능에 충실할 것을 강요하는 반면에 superego는 ego에게 도덕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한다.¹²⁾

일반적으로 id는 성격의 생물학적 요소이고, ego는 심리학적 구성요소이며, superego는 사회적 구성요소로 생각될 수 있다.¹³⁾

본 연구는 id가 따르는 본능적 에너지의 방산에서 생기는 만족의 쾌감을 얻는데 목적을 둔 쾌감원칙(pleasure principle)과 ego가 따르는 욕구를 채우는 현실대상이 발견될 때까지 에너지의 방산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둔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의 Freud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둔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현실대상인 복식을 통하여 즐거운 만족, 즉 쾌감원칙(pleasure principle)을 수행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여성을 그렸으며, 여성이 착용한 의복과 장식에 초점을 둔 그림을 그렸

7) Ibid., p.66.

8)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1.,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68., p.252.

9) 전병계, op. cit., p.67.

10)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op. cit., pp.6~7.

11) 전병계, op. cit., pp.67~69.

12) Ibid. pp.69~71.

13) C. S. Hall, G. Lindzey, 이상도, 이관용 공역, 성격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 출판부, 1982) p. 38.

던 르노아르의 그림에서 복식을 착용하여 욕구만족, 즉 쾌감을 얻는 여자복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V. 르노아르 그림에 나타난 여자 복식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르노아르의 그림이라는 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복식을 통한 쾌감원칙(pleasure principle)의 수행은 신체의 노출(exposure)과 장식(decor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여자복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르노아르의 그림에 나타난 여자 복식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찾을 수 있으며, 그러한 요인을 통하여 쾌감원칙(pleasure principle)을 수행한다고 본다.

1. 자기 도취(Narcissism)

자기도취(Narcissism)는 신체의 노출과 정교하고 풍부한 장식에 의해 나타내진다. 신체의 노출에 의한 자기도취는 자기의 몸을 찬양하며, 그것을 남에게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음에 의해 만족을 얻는다.¹⁴⁾ 신체의 노출은 복식에 의해 더 매력적이 된다.

<그림 1>에서 앞가슴과 팔이 노출되었고, corset에 의해 가슴이 더욱 강조되었다.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하였으며, 목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다. <그림 1>은 노출과 복식에 의해 매력이 더욱 증가되었다. 이 그림에서 자기도취를 느낄 수 있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화려하고 풍부한 장식에 의해 자기도취를 나타낸 예이다.

<그림 2>는 모자에 장식한 많은 꽃과 리본에서, 그리고 <그림 3>은 머리에 두른 화려한 색의 스카프와 꽃의 장식, 또 허리에 얹 벨트에서 화려함과 다량의 장식으로 만족을 얻는다.

장식의 본질적인 목적은 타인의 감탄스런 시선을 끌고, 자신의 자아 존중(self-esteem)을 높이고도록 신체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림 4>의 여인은 머리에 꽃으로 장식하고 의복의 앞 중심에 많은 리본장식과 소매 끝과 목



<그림 1> 앙리외 부인, 1876년.
(워싱턴 국립 갤러리 소장)



<그림 2> 부채를 든 소녀, 1875년.
(메사추세츠 클라크 아트 인스티튜트 소장)

14) J. C. Flü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Leonard & Virginia Woolf at the Hogarth Press), p. 86.



<그림 3> 매를 가진 소녀, 1880년.
(메사추세츠 클라크 아트 인스티튜트 소장)

그리고 치마단에 frill로 장식하였다. 여기서 풍부한 장식에 의한 자기도취의 요인을 찾을 수 있으며, 정교하고 장식적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여성은 천성과 사회적, 성적 전통에 의해 남성보다 더 자기도취적(Narcissistic)이다.

2. 노출(Exhibitionism)

여성은 의복과 노출에 의해 매력이 발휘된다. 여성은 성적 리비도가 확산되어 있으며, 전신이性感화(sexualize)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에너지의 얼마의 양이 노출과 피부와 근육의 에로티시즘(skin and muscle eroticism)에 의해 흘러없어짐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이때 의복은 신체를 과시하도록 도와주고, 신체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다 눈에 띄이도록 도움



<그림 4> 그네, 1876년.
(파리 인상파 미술관 소장)



<그림 5> 음악회에서, 1880년.
(메사추세츠 클라크 미술 연구소)

을 주며, 집합작용과 장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리에 의해서 신체를 보다 더 매력적으로 남의 눈

을 끌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가슴과 같은 여성의 특징을 노출시켜 성적 매력을 높였으며, 의복과 장식에 의해 신체의 노출 부분에 더 많은 아름다움이 부여되었다.

<그림 5>는 가슴과 팔이 노출되었으며, 까만색의 의복으로 성적 매력을 높였고, 가슴 가운데의 꽃 장식이 가슴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게 한다. 이러한 노출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쾌락 원칙(pleasure principle)을 수행하며, 자기도취에 빠지기도 한다. 많은 사람의 칭찬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면 쾌감은 더 높아진다.

<그림 6>에서도 가슴과 팔이 노출되었으며, 어깨 부분의 빨간 꽃 장식이 시선을 끈다.

<그림 7>은 어깨와 가슴부분을 노출시키고 있다. 의복을 팔 아래로 약간 내림으로써 한 쪽 어깨만을 노출시켰는데, 이러한 의도적 노출은 더 많은 만족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도적인 노출은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갖게 한다.

신체가 노출된 위의 그림에서, 복식의 궁극적



<그림 7> 편물하는 여자, 1875년.

(메사추세츠 크라크 미술 연구소)

인 목적은 의복 착용자의 성적 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성과 찬미자의 성적 관심과 동성 경쟁자의 부러움을 자극시키는데 있다. 그래서 이성의 주시에 의해 만족을 얻는다.

3. 신체적 자아의 확대(Extension of the bodily self)

Flügel은 “복식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만족의 산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효과는 심리학적으로 환상에 달려있다¹⁵⁾”고 하였다. 이러한 환상은 복식 때문에 일어나는 인체 형태의 확대를 무의식적으로 의복을 착용한 신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일어난다. 복식은 확대(extensive)의 기능을 한다. 한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체의 분명한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복식은 우리에게 힘의 증가와 신체 자체의 증가를 느끼게 한다. 즉,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신체와 힘의 증가에 따른 만족을 복식은 제공한다.



<그림 6> 사마리 부인의 초상, 1877년.

(모스크바, 푸슈킨 미술관)

15) Ibid., p. 36.

화려하고 볼품있는 의복은 자연적인 신체에 대하여 인위적인 신체를 만드는 경향이 있고, 자연적인 신체를 숨김으로써 인간이 실제와는 다른 환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의 매우 분명한 예는 모든 의복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한 skirt이다. skirt를 입은 여성은 훨씬 더 풍부하고 부피가 있는 크기를 취하며, 다리 사이의 공간이 채워지고 매우 증가된 위엄을 갖는다. skirt는 우아하고 위엄이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복식의 심미적인 잠재성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다.

르노아르의 그림에서도 신체적 자아의 확대를 갖게 하는 것의 대부분이 skirt이며, 이외에 모자와 리본, 벨트 등의 장식이 있다.

skirt는 대체로 hip의 size 증가를 가져오는 bustle skirt이며, hip을 강조하였다. hip의 size 증가를 가져온 bustle skirt의 예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으며, skirt를 착용하여 신체적인 힘의 인상과 나체에 의해서는 얻어질 수 없는 우아



<그림 8> Lady with a Parakeet, 1871년.
(New York,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Thannhauser Collection)

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위엄을 창조한 예는 <그림 9>, <그림 10>, <그림 11>에서 볼 수 있다.

또한 skirt는 몸의 운동, 특히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몸의 방향을 따라 공간의 면적을 차지함으로써 신체적 자아의 확대를 갖는다. 이러한 효과는 늘어지거나 느슨한 의복, 늘어진 장식의 형태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그림 1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3>에서는 뒤통이 끌리는 skirt와 모자, 그리고 양산을 든 것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적 자아가 확대되었다.

또한, 모자와 리본 장식으로 신체적 자아의 확대를 가져온 예는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을 들 수 있다.

4. 성감 부위(Erogenous zone)의 강조

르노아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성감 부위는 가슴과 hip이다. 이러한 여성의 특징인 가슴과



<그림 9> 춤추는 소녀, 1874년.
(워싱턴 국립화랑)



<그림 10> 모네부인상, 1872년.
(메사추세츠 크라크 미술 연구소)



<그림 12> 부지발의 무도회.
(보스턴 미술관)



<그림 11> 샤르팡티에 가족, 187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복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러한 예는 <그림 1>, <그림 5>, <그림 6> 등에서 볼 수 있고, <그림 17>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르노아르 그림의 여자 복식은 hip의 후부가 거대하게 부풀려져서 hip을 강조하였으며, hip에 관심을 끌었다. 가슴은 신체를 노출시킴으로써 강조되었고, hip은 과도한 장식적으로 강조되었다. Hip을 강조한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의 skirt 예는 <그림 8>과 <그림 18> <그림 19>에서 볼 수 있다.

hip을 강조하는 복식을 통해서 쾌감 원칙(pleasure principle)을 수행한다.

가슴은 여성의 복식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가슴의 강조는 corset으로 허리를 조임으로써, 그리고 가슴 부분을 드러낸 의

5. 근육의 에로티시즘(Muscle-Eroticism)

쾌감은 근육의 자유로운 운동에 의해 일어



<그림 13> 양산을 든 리즈, 1867년.
(엡센, 플크방 미술관)



<그림 14> 처음하는 외출, 1875~76년.
(런던, 국립회랑)

난다. 그러나 의복은 이러한 몸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의복의 무게에 의해 몸의 움직임이 변화한다. 이러한 근육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만족의 상실에 대하여 의복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ight한 의복(belt, corset)에 의한 안락한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의복은 복부 근육의 수축에 수반되는 흥분을 일으킴으로써 신체의 힘을 증진시키는 것 같다.¹⁶⁾

Flügel이 말한 것처럼, 의복은 신체를 조여줌으로써 쾌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을 수행하는 르노아르 그림의 여자 복식의 예는 <그림 1>,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8>,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7>



<그림 15> 해변에서, 188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6) Ibid., pp.88~89.



<그림 16> 모델의 초상, 1878~80년.
(파리, 인상파 미술관)



<그림 17> 특등석, 1874년.
(런던, 쿠르톨드 연구소)



<그림 18> Dancing in Town, 1883년.
(Paris, Durand-Ruel Collection)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이 corset으로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있다.

V. 결 론

Freud의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과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르노아르 그림의 여자 복식에서 복식을 통하여 욕구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의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19> Dancing in the Country, 1883년.
(Paris, Durand-Reul Collection)

1. 자기 도취(Narcissism)

신체의 노출과 풍부하고 화려한 장식에 의한 자기도취를 통하여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을 수행한다.

2. 노출(Exhibitionism)

여성은 성적 리비도가 신체 전체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노출에 의해 만족을 얻으며, 이때 의복은 신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3. 신체적 자아의 확대(Extension of the

bodily self)

화려하고 볼품있는 의복과 모자, 리본 등의 장식에 의해 신체 자체의 증가와 힘의 증가를 느끼게 함으로써 만족을 얻도록 한다.

4. 성감 부위(Erogenous zone)의 강조

성감 부위는 가슴과 hip이며, 가슴은 노출을 통하여 그리고 hip은 과대한 장식을 통하여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성감 부위를 강조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5. 근육의 에로티시즘(Muscle-Eroticism)

의복이 신체를 조여줌으로써, 즉 corset이 허리와 복부를 가늘게 조임으로써 쾌감을 얻는다.

참고문헌

1. 全圭泰, Renoir, 서울 : 瑞文堂, 1982.
2. 전병재, 사회심리학, 서울 : 경문사, 1985.
3. 르노아르, 서울 : 한국일보사, 1974.
4. 세계의 명화 5, 서울 : 삼성이데아, 1988.
5. 현대 세계미술 대전집 2, 세간 / 르노아르, 서울 : 금성출판사, 1973.
6. C. S. Hal, G. Lindzey, 이상로, 이관용 공역, 성격의 이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부, 1982.
7. E. 페쨌, 朴淳鐵 역, 르노아르, 서울 : 열화당, 1980.
8. Bernard S. Myers, *McGraw-Hill Dictionary of Art*, Vol. 4. London: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69.
9. François Daulte, RENOIR, London: Thames and Hudson, 1979.
10.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Charles Brenner, "Psychoanalysis".
11. J. C. Flü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Leonard & Virginia Woolf at the Hograth Press.
12.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68.